opinion of hazard of smoking to health.

conclusion: In 2002, 5.6% of Seongbuk-gu smokers in and over twenties were hard-core smokers. Compared with other smokers, It was found that a person who was in '30-40th', '12 years of education' and 'married' would be more likely to be hard-core smoker. It was also found that a hard-core smoker tended to start smoking at younger age than others groups and also showed more negative health opinions to smoking than other groups.

KSPM-173

고등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신념에 관한 연구

Knowledge, attitude and beliefs about health and cancer prevention : the views of high school students

한지형[1], 백은미[1], 윤태형[1], 한동운[1,2]

(1) 한양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, (2)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

목적: 최근 암 발생의 증가는 사회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, 그 발생위험요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과 일상적인 생활습관이 주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계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. 특히 개인의 건강행위가 그 주요 원인의 하나이며, 이는 사회?심리적,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, 또한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건강행위나 태도, 지식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어 지고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학교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암에 대한 지식, 태도 및 신념에 대한 실태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.

방법: 서울지역의 H고등학교 학생 460명에 대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,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430개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하였다. 설문내용은 기존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하였고,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으며, 설문 문항은 크게 건강에 대한 ①지식, ②태도, ③신념, 암에 대한 ④지식, ⑤태도, ⑥신념으로 구분하였다. 응답자의 건강행위를 바탕으로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 및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, 신념을 빈도분석, Chi-square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.

결과: 첫째, 암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 암에 대해 응답자의 94%가 들어 본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중매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98%(422명)가 흡연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. 둘째, 암에 대한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암에 대한 관심정도에서는 39%(169명)가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으며, 각종 암중에서도 폐암이 가장 두렵다고 답하였다. 암에 대한 교육경험여부에서는 40%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, 81%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. 셋째, 암에 대한 신념을 조사한 결과 암에 대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96%(413명)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, 87%는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암에 대한 관심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일수록 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정의 상관관계(r값=.190)를 보이고 있으며($p<0.01$), 암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, 암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교육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r값=.109,$p<0.05$).

결론: 청소년들에 있어 암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질병이었으며,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. 또한 이들은 암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고 이는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나, 생활태도에 있어서는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은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, 암에 대한 신념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. 따라서 체계적인 암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시기부터 암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학교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

KSPM-180

지역주민들의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조사: 예방책 채택과정 모형 (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)의 활용

Stage Assessment of Cancer Screening Behavior: Using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(PAPM)

이명순[1], 강민정[1]

(1)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

목적: 암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1위로,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암 발생 및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,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 현재,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시민들의 암 조기검진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대상집단의 암 조기검진 실천정도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. 본 연구에서는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(PAPM)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암 조기검진 실천정도를 조사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암 조기검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.

방법: 조사 대상집단은 4개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암 조기검진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31세 이상 65세 미만인 지역주민 1,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, 표본추출은 성, 연령, 암 검진비용 혜택여부 등을 고려해서 할당표본추출을 하였다. 조사내용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,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, 암 및 암 조기검진 관련 요인 등이다. 조사도구는 PAPM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조사설문서 형태로 개발하였다.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조사설문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또는 조사원에 의한 개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. 자료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,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, 암 및 암 조기검진 관련 요인 등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,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암 및 암 조기검진 요인에 따른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분포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.

결과: PAPM에 근거해서 암 조기검진 실천정도를 6단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, 암 조기검진 고려단계가 29.8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암 조기검진 실시단계 28.6%, 암 조기검진 비인식 단계 18.9%, 암 조기검진 실시결정단계 11.6%, 암 조기검진 무관심단계 9.7% 순으로 나타났다. 암 조기검진 비실시 결정단계는 1.5%에 불과하였